

#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 유형

배 창 일(대구대학교 석사) · 정 영 숙(대구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한부모가족과 양부모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유기적 관계를 알아보고 각각의 유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가족유형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자료는 설문지법을 적용하여 2012년 6월 한 달 동안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771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측정도구는 Rosenberg가 만든 자아존중감 척도를 양강순(2009)이 사용한 것을 참고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요인분석을 적용하였고 변수 간에 공통 요인을 파악하여 각 유형의 구조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에 대해 양부모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일반적, 가족적, 관계적, 사회적 자아존중감 등으로 4개의 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의 내적일관성을 반영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는 0.615~0.812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에 비해 한부모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가족적, 일반적, 사회적, 관계적, 감정적 자아존중감 등 5개 요인으로 구성되고 이들 요인으로 설명되는 총분산은 63.54%이며, Cronbach's  $\alpha$ 계수는 0.552~0.812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해 보면 가족유형에 따라 자아존중감 유형수도 다를 뿐 아니라 유형별 구조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 자아존중감 유형의 경우, 두 집단 간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항목은 '결심대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등이다. 그러나 양부모가족은 공통요인 외에 '학급에서 지명을 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항목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즐겁다'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다. 이 외에 관계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항목이 양부모가족 아동의 경우 가족적 요인에 포함된 반면 한부모가족 아동은 사회적 요인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양부모가족 아동에게서 나타난 사회적 자아존중감이 한부모가족 아동에게는 사회적, 감정적 자아존중감으로 구분되어 나타나 집단 간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은 상호작용으로 각각의 요인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구조적인 맥락에서 형성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유형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동일한 요인이 모든 아동에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관련된 내·외적 요인간의 조화 또는 부조화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자아존중감을 구성하는 요인간의 이러한 구조적 관계는 자아존중감 수준 그 자체만큼이나 아동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아존중감 유형은 상호연관된 요인들이 내재적으로 구조화되는 방식을 의미하므로 각각의 요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각 요인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어떤 요인들은 상호보완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한 요인의 수준증가는 다른 요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유형별 자아존중감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자아존중감에 학년, 가정형편, 학교성적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적 자아존중감에는 학년, 학교성적이, 관계적 자아존중감에는 성별, 학년, 가정형편, 학교성적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에는 성별, 학년, 학교성적, 부모의 학력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